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4호 [우계 제25367호] 주제105 (2016)년 8월 11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국토관리총동원운동을 발기하신 20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위대한 강령을 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우승리를 향하여 총매진해나가고있는 천만 군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국토관리총동원운동을 발기하신 20돐을 맞이하고있다.

뜻깊은 이날에 즈음하여 전체 군대와 인민은 오늘날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조국을 떠맡드는 무리가 되어서 선군시대 국토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고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고있다. 또한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조국산천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라!>,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삼립목구주투쟁을 힘있게 벌려라!>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고있다.

보고회에는 박봉주동지, 박영식동지, 오수용동지, 최부일동지, 로두필동지, 김수갑동지와 무혁,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평양시안의 기관, 기업소 일꾼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가 보고 <국토관리총동원운동의 불길은 새차게 지켜올려 위대한 장군님의 국토건설사상과 명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자>를 하였다.

확신을 굳게 간직하였다. 보고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토건설사상과 명도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천명한 명도따라 국토관리총동원운동의 불길은 더욱 새차게 지켜올려 내 나라, 내 조국을 천하제일강산으로 꾸려 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의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노래 주악으로 보고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구라 무세베니각하
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당신이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따뜻한 진문을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체105(2016)년 7월 22일
조국해방 71돐과 선군절에 즈음하여
별가리아단체 불레진특간호 발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세기를 이어 길이 빛나는 불멸의 업적
민주평교신문 특집
조선인민은 15성상에 걸치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김일성주석의 민족의 태양, 애방의 구세주로 높이 우러러모시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이 승리하였다. 조선인민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독립국가건설에 힘있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해방의 은인이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세기를 이어가며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